



붉은 황토 기운 짙어할 영암 고구마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한 농가의 붉은 황토밭을 배경으로 15일 인부들이 고구마순 심기가 한창이다. 이때쯤 손을 심은 고구마는 10월 이후 수확에 들어가, 3개월가량 저장창고에서 숙성기간을 거치면 맛도 풍미도 경쟁력도 전국 으뜸인 영암 붉은황토고구마로 출하된다. /영암군 제공

신창동 유적~호가정...역사문화유산길 속도

영산강Y벨트에 역사·문화·생태 시민공간 조성

광주시가 신창동 유적부터 황룡강으로 이어진 호가정(지정 문화유산)까지 '견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신창동 유적과 호가정 일원 등 영산강Y벨트에 '견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창동유적지에는 2000년 전 마한의 옛 수로를 재현하고 호가정에는 역사길을 조성해 역사·문화·생태가 함께하는 시민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창동 유적 서쪽 구릉 경사면 저습지에는 500m 길이의 수로를 조성해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수로는 옛 마한의 자연 배수로 형태로 재현할 계획이다. 자연 배수로 설계를 위해 관련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 배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산구와 협업을 통해 문화재청에서 지원되는 국비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 또 '신창동 종합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역사공원 조성, 마한유적체험관 연계 사업 등을 발굴할 방침이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지난 1992년 9월 국가사적 제375호로 지정됐다. 월봉산 능선의 끝자락에 자리해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초기 철기시대와 삼한시대의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돼 역사문화 교육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과거 영산강 범람으로 유입된 토사가 자연적으로 저습지로 형성돼 수천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유산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이다. 광주시는 또 영산강과 황룡강 합수부에 위치해 수변경관 조망이 우수한 '호가정'에도 2025년부터 역사문화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호가정 주변 환경정비(둘레단 설치·수목정비)와 인근 영산강과 황룡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와 경관 정원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이 어울리는 수변 산책로, 경관 정원 조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역사유산과 영산강 Y프로젝트의 시너지인 신창동 유적과 황룡강에 이어진 호가정까지 견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 의대 공모 공론화...정치지형 등 변수로

도, 목포권·18일 동부권 지자체·대학 연쇄 회동
 역대급 여소야대·총선 결과·공모 정당성 과제로

전남도가 국립 의대 신설 방식을 기존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에서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급선회한 가운데 공정성 확보와 오해 불식을 위한 동·서부권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10 총선으로 국회 권력이 재편됐고, 전남 현역의원 상당수가 물갈이된 가운데 달라진 정치 지형과 표면화된 동·서부권 간 유치 갈등, 공모의 법적 구속력 등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까지 넘어야 할 파고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등과 만나 국립 의대를 공모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향간의 여러 소문에 대한 입

장도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만나 동부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외부 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방향성과 공정성 담보 방안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설립, 정원 200명 규모라는 1차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올해 안에 설립 대학, 즉 의대 입지를 결정해야 해 시간적으로 촉박해 속도감있는 공모가 필요하다"며 "대학, 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적합한 신청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서부권 간 유치 경쟁은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원익 의원은 재선 성공 후 첫 일정으로 목포대를 찾아 "공모는 실정법에 어긋난다"며 목포대 단독 의대 유치 협의에 나섰고, 같은 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갑), 권항열(을) 당선인은 총선 전남 순천대 앞 회견에서 "순천~광양~여수를 아우르는 순천대가 전남 의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종택 당선인도 총선 이틀 전 "공공 의대를 공모로 선정하는 건 정치논리로, 통합보다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공모 자체를 공개 반대했다. 목포와 순천으로 한정됐던 유치전은 총선이슈로 부상하며 서·남부권과 동부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부권은 34년 간 유치전을 벌인 데다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

됐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8%에 달하고 의대·병원 설립부지가 이미 확보된 점을, 동부권은 광주·전남 유일 글로벌30과 전남 산업현장 70%가 밀집됐고 전국 첫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갖춘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총선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총선 결과, 서·남부권에선 5선, 3선 등 다선 중진의원도 여럿 배출됐고 목포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목포 유치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에선 여수 갑을 제외하고 전원 물갈이된 가운데 순천과 인연이 깊은 인요한, 천하람 후보가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 비례로 국회에 입성, 역대급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국 속에 순천의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목포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공모 절차의 법적 구속력도 해결과제다. /김 호 기자

"사회적 참사 예방법·제도 정비해야"

세월호·이태원 참사까지 안전 사각지대

광주시의원들이 15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형 재난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세월호로부터 이어지는 대형 참사들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시의원들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책임자 처벌 없이 재단이 마무리 됐다"며 "이런 와중에 이

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안전망을 촘촘하게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을 예방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2면
야당, 각종 특검 재추진	3면
식품 외식업계 줄줄이 인상	4면

전국 최대 규모 2000평 스포츠센터 상무지구

파라드시티

QED골프

Fitness 광주유일 실내 100m트랙 AI 디렉스팀

1:1PT 개인PT룸 스트레칭존

Tennis 스크린 연습장 실내 정식 코트 실외 코트 가능

Golf 1000평 규모 31타석

평일 06시~24시 / 주말 08시~22시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음 상가 2,3층 파라드시티(광주CGV 건너편)
 문의 062 374 0088

10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 2개 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